

## 유럽의 위기와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조 홍 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존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가운데 위기와 통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특히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거대 학파 안에 존재하는 통합이론을 비교하기보다는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위기와 통합을 다루는 중간 층위의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 연구에서 실제 활용·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유럽통합의 이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능주의 이론을 제일 먼저 살펴본 뒤, 제도주의적 접근을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나 제도주의와 같은 구조적 이론보다 행위자의 능력(Agency)을 강조하는 정치전략론의 관점에서 위기의 문제를 탐구해 본다. 결론에서는 기능주의, 제도주의, 정치전략론 등의 이론적 도구를 실제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어: 유럽, 위기, 통합, 이론

### 차 례

- |                     |           |
|---------------------|-----------|
| I. 위기와 통합: 문제의식의 구성 | IV. 정치전략론 |
| II. 기능주의            | V. 연구전략   |
| III. 제도주의           |           |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chs@ssu.ac.kr](mailto:chs@ssu.ac.kr)

## I 위기와 통합: 문제의식의 구성

위기가 통합을 가져온다는 등식은 굳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Jean Monnet)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역사와 일상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상식에 속한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은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로부터 위기가 오더라도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략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모네가 제창한 위기를 통한 통합론은 일반 상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왜냐하면 모네는 “위기가 통합을 가져온다”는 일반론을 넘어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발전시켰다. 게다가 모네는 “위기를 활용하여 유럽통합을 이뤄간다”는 전략론으로 발전시켰다. 위기와 통합의 관계를 고민하는 학술적 논의는 당위론이나 전략론보다는 일반론에 가장 가깝다. 다만 위기가 존재할 경우 시차적으로 통합이 뒤따른다는 단순한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위기가 통합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sup>2)</sup>.

고대 그리스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위기(crisis, κρίσις)는 원래 서로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사안을 두고 진행하는 판단, 결정, 선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위기를 제일 먼저 적용한 분야는 의료로 병이 치유되거나 죽음으로 가는 갈림의 순간을 지칭했다. 프랑스어는 질병이 악화하는 경우를 위기라고 불렀고, 분쟁적이거나 불확실한 시기를 위기로 지칭했으며, 무엇이 부족한 상황도 위기로 이해했다. 달리 말해 유럽 언어에서 위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가 변화

- 
- 1) 장 모네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유럽이 위기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유럽이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집합일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Jean Monnet, *Mémoires* (Fayard, 1976) p.488.
  - 2) 이론이란 일반적인 역사의 규칙을 도출해 낸다는 강한 과학적 입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위기와 통합을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고 다양한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공동의 동학(dynamic)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장 모네의 활동 시기에 유럽통합과 위기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Gilles Grin, *Jean Monnet et les crises européennes* (Fondation Jean Monnet, 2009).

할 수 있는 전환점의 뜻을 품고 있다<sup>3)</sup>. 위기는 따라서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나 시기를 의미한다.

거시 역사적으로 전환점의 의미를 명백하게 뜻하는 혁명은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은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sup>4)</sup>. 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는 많은 경우 새로운 정책, 시각, 인식, 철학, 세력을 가져오는 변화의 기반이었다.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위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도브리는 정치 위기란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설명했다<sup>5)</sup>. 평상시에는 제도와 체제가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작동하지만, 위기는 이런 제도와 체제가 느슨해지거나 아예 해체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하고 심층적인 변화가 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가운데 위기와 통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영미 학계에서 유럽통합은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라는 학파의 주장을 통합에 투영하는 이론으로 논의된다<sup>6)</sup>. 하지만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거대 학파 안에 존재하는 통합이론의 비교보다는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위기와 통합을 다루는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 연구에서 실제 활용·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유럽통합의 이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능주의 이론을 제일 먼저 살펴본 뒤, 제도주의적 접근을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나 제도주의와 같은 구조적 이론보다 행위자의 능력(Agency)을 강조하는 정치전략론의 관점에서 위기의 문제를 탐구해 본다. 결론에서는 기능

3) André Béjin, "Crise," Raymond Boudon et al. *Dictionnaire de la sociologie* (Larousse, 1989), pp.51-52.

4) Déborah Cohen et Jacques Guilhaumou, "Crises et révoltes sociales dans l'historiographie de la France contemporaine," *Actuel Marx*, No 47, 2010, pp.43-53.

5) Michel Dobry,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La dynamique des mobilisations multisectorielles* (Presses de Sciences Po, 2009).

6) Ben Rosamond,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Red Globe Press, 2000); Antje Wiener, Tanja A. Borzel, and Thomas Risse, eds., *European Integration Theory*,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주의, 제도주의, 정치전략론의 이론적 도구를 실제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 II 기능주의

유럽통합이 처음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1950년대와 1960대 가장 유행했던 사회과학이론은 신기능주의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럽통합이나 지역 통합의 좁은 틀을 벗어나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능적 필요와 사회적 구조·제도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아주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사회과학의 기초를 제공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능주의적 사고를 보여 준다.

가장 강력한 구조 기능주의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 중심의 하부 구조와 정치·문화의 상부 구조를 구분한 뒤 하부 구조의 변화가 상부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sup>7)</sup>. 특정 하부 구조가 그에 해당하는 상부 구조를 요구한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이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위기는 하부와 상부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하부 구조는 자본주의로 변했는데 상부 구조는 여전히 봉건적 왕족과 귀족의 지배체제라면 상·하부의 괴리로 인한 위기가 발생한다. 봉건적 정치 체제에서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이런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변화다.

뒤르켐은 인간 사회의 구성 원리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한다고 설명했다<sup>8)</sup>. 기계적 연대가 지배하는 전통 사회는 구성원이 모두 같은 신념이나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기계·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다. 유기적 연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근대 사회는 구성원들이 분업을 통해 기

7)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sup>rd</sup> ed. (Harper Perennial, 2008); Simon Clarke, *Marx's Theory of Crisis* (Springer, 1994).

8) Emile Durkheim,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3).

능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을 보여주는 사회다. 뒤르켐의 시각에서 위기란 유기적 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노미의 상태다.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도덕적 가치관의 통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노미, 즉 위기가 발생한다. 구조적 통합과 문화적 소외가 만날 때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마르크스나 뒤르켐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능적 사고는 20세기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전간기(戰間期)에 현실주의와 기능주의가 대립적인 이론적 틀로 부상했다. 현실주의가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 행위자로 인해 국제 정치가 움직인다는 시각을 반영했다면 기능주의는 국제사회나 세계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이뤄진다는 시각을 내세웠다<sup>9)</sup>. 기능주의는 국가 행위자의 독점적 위상을 비판하면서 비국가 행위자, 달리 말해 경제 행위자(대기업, 은행 등)나 사회 행위자(국제 협회, 조직 등)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간기는 국제연합의 조직화를 시도한 시기이며 기능적 영역에 따라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란 기능적 통합의 필요를 부정하고 국가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이고 맹목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분쟁과 전쟁, 혼란과 문제를 지칭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기능주의 이론은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전문화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스, 린드버그, 도이치 등은 기능주의의 일반적인 설명의 틀을 세분화해서 세련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sup>10)</sup>. 사회나 경제의 통합적 현실이 거시적으로 정치나 제도의 통합을 낳는다는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동학과 과정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9) David Mitrany,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Government* (Allen&Unwin, 1933).

10) Ernest Haas, ed.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3r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4 [1958]); Karl Deutsche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Leon N. Lindberg and Stuart A. Scheingold, *Europe's would-be polity : patterns of change in the European community* (Prentice Hall, 1970).

하스는 특히 스페일오버(Spillover)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자율성을 지닌다. 크게 봐서 경제와 정치의 영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 통합된 경제 상황이 반드시 통합된 정치로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를 지배하는 논리와 정치를 주도하는 논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경제 영역에서 예를 들어 통화, 금융, 실물 경제는 각각 다른 원칙과 논리가 주류를 이룬다. 하스의 스페일오버는 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스페일오버란 A라는 영역에서 통합이 이뤄졌는데 그 통합으로 인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B라는 영역까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메커니즘을 지칭한다<sup>11)</sup>.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이런 스페일오버 현상은 다양하다. 거시적 통합사만 보더라도 석탄과 철강에서 시작한 산업 통합은 모든 상품에 대해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유럽경제공동체로 발전했고, 이는 다시 농업이나 산업 등에서 정책적 통합을 가져왔다. 이어서 단순한 공동 시장이 아닌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지닌 단일시장으로 발전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단일시장이 형성된 뒤에는 화폐의 통합이라는 결정적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스페일오버는 진행된 셈이다. 화폐가 통합되자 2010년대에는 은행의 연합이 추진되었고, 2020년대에는 채권을 통한 재정의 통합까지 발전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석탄·철강·공동시장·무역·농업정책·단일시장·단일화폐·은행연합·재정정책으로 연결되는 거시역사적 스페일오버는 순탄하게 진행되었는가.

스페일오버는 원래 순탄하게, 또는 거의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면 신기능주의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에서, 합리적 인간이라면 필요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현실은 신기능주의의 시각과는 사뭇 달랐고, 통합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수월하거나 순탄하지 않았다. 심지어 1970년대는 처음에 신속하게 진행되던 통합이 멈추

11) Schmitter, Philip C., "Three neo-functional hypotheses about intern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23(1), 1969, pp.161-166.

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기미를 보이자 신기능주의를 용도폐기하거나 죽었다고 선언하는 일도 벌어졌다<sup>12)</sup>.

여기서 통합 정체(停滯, stagnation)의 기능적 역할이 등장한다. 사회는 기능주의적 신기능주의적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회는 항상 분쟁이 있고 대립이 존재하며 기능적 합리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변증법적 기능주의란 순탄한 통합이 어느 순간 정체를 맞게 되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을 제시했다<sup>13)</sup>. 이 이론적 틀에서 정체는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정체를 통해 사람들은 통합의 중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고 고통을 초래하는지 인식하면서 새로운 통합을 추진하거나 수용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역사 전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정체와 위기의 역할, 즉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위기와 유사한 측면을 신기능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나 뒤르켐의 기능주의적 세계관이나 신기능주의에서 전제하는 통합(국가에서 지역, 세계로 연결되는)은 모두 진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전제하는 듯하고, 따라서 역사의 필연적 방향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정체나 위기를 통한 스피로버로 통합이 진전된다는 시각은 유럽통합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세밀한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 정체라는 시각은 신기능주의가 내부적(endogenous) 논리를 통해 발전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신기능주의의 핵심 전제를 살펴보면 정체를 넘어 위기라는 개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신기능주의는 제한적 합리성, 불확실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데,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해 불확실한 정책을 만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4)</sup>. 앞서 언급한 정체를 통한 통합에서 정체란 이런 내

12) Ernest Haas,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30(2), 1976, pp.173-212.

13) Dorette Corbey, "Dialectical functionalism: stagnation as a booster of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2), 1995, pp.253-284.

14) Z. Lefkofridi and Philip C. Schmitter, "Transcending or descending? European

부적 논리에 의한 위기를 지칭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나 통합현상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위기에서도 통합이 발전하는 현상은 많았다. 최근 2010년대의 사례와 연구를 살펴보면 유로 위기나 난민 위기, 역외 불안정의 위기, 코로나 위기 등이 통합을 촉진한 경우로 제시되었다. 유로 위기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유럽적 여파였고<sup>15)</sup>, 난민 위기는 2010년대 아랍의 봄이 초래한 난민 폭증의 결과였다<sup>16)</sup>. 유럽의 권한은 두 위기를 통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sup>17)</sup>.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상 불안정이나 코로나로 인한 보건 및 경제위기도 외부의 위협에 유럽이 통합의 강화로 대응한 사례다<sup>18)</sup>.

위기에 대처하면서 통합을 진전시키는 방식도 보다 세밀하게 제시되었다<sup>19)</sup>. 예전부터 언급되었던 스피lover(연쇄효과)는 유럽의 권한(competence)을 확대하고 초국적 정책 능력(governance)을 강화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스피어라운드(Spill-around, 우회효과)는 똑같이 유럽의 권한 확대를 가져오나 정책 능력은 초국적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간주의(政府間主義, intergovernmentalism) 틀 속에서 회원국을 활용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강화효과(build up)는 기존 권한의 틀 안에서 초국적 기관의 정책 능력이 강

---

integration in times of crisi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2015, p.8.

- 15) E. Jones, R. D. Kelemen and Sophie Meunier, “Failing forward? The euro crisis and the incomplet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9(67), 2016, pp.1010-1034; F. Nicoli, “Neofunctionalism revisited: Integration theory and varieties of outcomes in the eurocrisi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42(7), 2020, pp.897-916.
- 16) A. Niemann and J. Speyer, “A neo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European refugee crisis’: The case of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6(1), 2018, pp.23-43.
- 17) P. Genschel and M. Jachtenfuchs, “From market integration to core state powers: The eurozone crisis, the refugee crisis and integration theor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6(1), 2018, pp.178-196.
- 18) Bergmann, J. and P. Müller, “Failing forward in the EU’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The integration of EU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8(10), 2021, pp.1669-1687; Eleanor Brooks, Annick de Ruijter, Scott L. Greer and Sarah Rozenblum, “EU health polic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neofunctionalism and crisis-driven integr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0(4), 2023, pp.721-739.
- 19) Nicoli, “Neofunctionalism revisited,” p.902.

화되는 기제를 지칭한다. 유럽 통합의 강화를 법적·제도적 권한과 정책 능력의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또 정책 능력도 초국적 기구와 회원국 기구로 구분해서 접근한다는 의미다.

넓은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주의적 차원을 거의 항상 동반하는 편이다. 어떤 현상의 배경을 설명하는 구도 자체가 상당한 기능적 사고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사회과학은 기능적 필요와 실천적 변화를 연결해서 사고했고 이는 마르크스나 뒤르켐에게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어 20세기 국제정치학에서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차원에서 국가들이 서로 영합적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기능적 필요에 따라 국제적 협력과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20세기 중반부터 신기능주의는 유럽통합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스피엘오버, 기능적/정치적 통합, 변증법적 기능주의 등으로 발전했다.

### III 제도주의

기능적 필요와 현실적 결과를 연결하는 사고가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인식 구도라면 역사학은 시간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19세기의 사회과학은 근대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마르크스), 유기적 연대(뒤르켐), 민주적 상태(토크빌), 합리성의 부상(베버) 등 각각 거대한 변화에 주목했다. 역사학은 동시대의 다발적 변화보다는 특정 사회나 지역을 시간의 선 위에서 바라보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이 횡적인 시각이라면 역사학은 종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사회과학자들도 초기에는 역사적 접근법을 중시했다. 앞서 언급한 마르크스나 뒤르켐은 모두 역사적 연구를 등한시하지 않았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베버(Max Weber)도 심지어 역사사회학의 전통을 만들었을 정도로 사회적 현상의 역사적 깊이를 중시했다<sup>20)</sup>. 마르크스와 뒤르

20) Bertrand Badie, *Le développement politique* (Economica, 1994).

켄이 기능적 변화와 사회의 적응을 더 강조했다면 토크빌과 베버는 커다란 변화의 틀 속에서 각 사회의 다양성과 색다른 ‘경로’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토크빌은 인류가 민주적 상태로 점차 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미국이 앞서가고 프랑스나 유럽이 뒤따라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미국과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를 대비하기도 했다<sup>21)</sup>. 베버도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초기 미국이나 영국의 자본주의의 생성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역할을 강조했다나, 일단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다른 작동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sup>22)</sup>.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집중한 현상에 대해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유럽에서 역사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역사학은 20세기 들어 아날(Annales)학과 등의 영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혔다. 제도주의란 사회과학적 사고와 이런 역사학적 인식의 접목으로 만들어진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제도주의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접근으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으로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합리적 선택,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나뉜다<sup>23)</sup>. 제도주의는 제도라는 구조가 인간 행위자에 강력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제도주의는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설명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사에서 제도주의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노스는 제도의 작은 차이가 시간의 누적으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영국과 스페인의 비교가 대표적이며, 심지어 두 유럽 국가의 차이는 식민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역설한다<sup>24)</sup>.

21) Jon Elster, *Alexis de Tocqueville, the First Social Scient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2) Richard Swedberg, *Max Weber and the Idea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23) Peter A. Hall and R.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1996, pp.936-957.

24)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도주의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도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방식이고,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어떻게 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을 규정하는가를 밝혀야 제도가 ‘지속’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처음에 제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이유로 ‘변화’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피어슨은 유럽통합에 있어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다<sup>25)</sup>. 정부간주의에서 주장하듯 유럽통합을 회원국 정부의 상호작용과 결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진 규칙과 과정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합의 경로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슨은 회원국 정부의 자율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초국적 기구의 자율성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 결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회원국 정부 선호의 불안정성, 변화에 저항하는 결정의 틀, 사회 행위자의 매몰비용(sunk cost) 등을 분석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어슨은 유럽사회정책의 사례를 들어 유럽통합의 ‘경로’를 설명한다. 경로 의존성은 유럽통합이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차 강화되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요긴한 개념이다. 다만 제도주의의 다른 핵심 고리인 왜 애초에 통합이 시작되었고, 통합을 강화하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 무기력하다. 일반적으로 제도주의에서 역사는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변화는 짧은 시기를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라 부르고 나머지 장기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시기라 본다. 하지만 제도주의는 전환점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이 다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Deus ex machina)로 수용했을 뿐이다.

위기와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전환점이다<sup>26)</sup>. 유럽 언어에서 위기(crisis)는 전환점(critical juncture)을 규정하는 의미로 상통한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를 전환점이라고 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간단

25) Paul Pierson, “The Path to European Integration: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2), 1996, pp.123–163.

26) Giovanni Capocchia and R. Daniel Keleman, “The Study of Critical Junctures. Theory, Narrative, and Counterfactuals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orld Politics* 59, April 2007, pp.341-369.

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일례로 유럽 사법 통합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유럽통합은 1950년대 조약에 기초한 국제기구로 출범해 준 연방적 정치공동체로 탈바꿈했다. 이 EU 사법체계의 헌법화 현상을 많은 학자는 경로의존적이고 자기 강화적인 현상으로 분석했다<sup>27)</sup>.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럽 통합의 가장 견고한 틀을 만드는 과정은 위기와는 별 상관없이 작은 우연의 결정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사법통합의 출발점이 되었던 유럽 사법기관의 사전 결정 절차(preliminary ruling procedure)는 로마 조약 체결 당시 독일의 공무원이 제안해 삽입된 기술적 조항(로마 조약 177조)이었다<sup>28)</sup>. 유럽법원이 유럽법의 우위(supremacy)와 직접 효과(direct effect)론을 주장하게 된 것도 1963년과 1964년의 판결을 통해서였으며, 이런 원칙이 유럽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1979년이다.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니고 시기도 1957년 로마 조약 협상부터 1979년까지 무척 길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나 시기를 전환점으로 봐야 할지는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최근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흥미로운 연구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과거 민족국가에서 이제는 회원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는 비커튼의 주장이다<sup>29)</sup>.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전후해 기존 민족 중심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유럽 차원의 회원국을 연결하는 횡적 정책 네트워크가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밀워드도 주장했듯 민족국가의 이익을 위해 유럽이 통합된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가 아예 회원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로 돌변했다는 설명이다<sup>30)</sup>. 물론 회원국 패러다임은 제도주의적 역학(dynamic)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구조적

27) Joseph H. Weiler, "The Transformation of Europe," *Yale Law Journal* 100, 1991; Karen Alter, *Establishing the Supremacy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Alec Stone Sweet, *The Judicial Construction of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8) 사전 결정 절차란 회원국의 법원이 판결하는 과정에서 유럽법원에 특정 법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유럽의 사법적 통합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제도로 평가된다.

29) Christopher J. Bickerton, *European Integration: From Nation-States to Member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0) Alan S. Milward,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 State* (Routledge, 1992).

제약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앞서 논의한 제도주의 이론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다.

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위기와 통합을 연결하는 일은 수월하지 않다. 통합의 전환점이 반드시 위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도주의는 위기보다는, 또는 비상시국보다는 일상을 설명하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보인다. 물론, 사법 분야의 통합이 특수한 경우이며 정치나 정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위기와 전환점, 비상시국과 변화가 더 잘 드러난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앞서 기능주의에서도 보았듯 외부적 충격은 빈번한 유럽 통합의 결과로 연결되었다. 제도와 위기라고 인식되는 사건이 만나 통합을 가져온다는 등식을 상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이라면 제도주의가 전환점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을 중시하는 다른 이론적 접근법으로 넘어가야 한다.

#### IV 정치전략론

기능주의는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접근법과 상통하고 제도주의는 역사학에서 구조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관점과 가깝다. 역사학 가운데서도 20세기 본격적으로 부상한 경제·사회·문화 중심 장기(longue durée)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여기서 우리가 정치전략론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은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의 구조적 시각을 고려하면서 행위자들의 역할을 다시 조망하는 방식이다<sup>32)</sup>. 말하자면 과거 정치사에 치중했던 전통 역사학의 주요 행위자,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다만 기능적이고 제도적인 제약과 함께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Fernand Braudel, *Grammaire des civilisations* (Flammarion, 1993), p.82.

32) 유럽통합과 관련해서는 21세기부터 이런 접근법이 유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구성주의에서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조홍식, 「지역통합과 전략적 구성주의: 이론 및 비판적 고찰」, 『유럽연구』, 30-3 (2012), 1-30쪽.

‘위기의 사회학’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제시한 도브리의 접근은 유럽통합을 살펴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sup>33)</sup>. 정치 위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도브리는 ‘복합 시스템의 가소성(可塑性, plasticit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치를 복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논리가 공존하면서 뒤섞이는 영역이다. 따라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가소성이란 유연성이나 적응력과 연결되는데, 시스템이라도 다소간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뜻이다.

도브리에게 위기의 특징은 ‘유동적 국면(conjoncture fluide)’으로 각각 따로 놀던 분야별 논리가 뒤섞이면서 평소보다 높은 유동성을 보이는 정국이다. 가소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도 쉽게 변화를 허용하지 않던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자들을 규정하던 족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영역의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말이다. 도브리 는 이를 ‘전술적 의존성의 확대(interdépendance tactique élargie)’라고 부른다. 달리 말해 현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여유가 만들어지고 그 때문에 위기는 종종 새로운 정치의 부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도브리가 제시한 위기의 사회학은 유럽통합과 위기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는데 요긴한 개념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시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도브리가 말한 복합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조약 개정이나 정책 강화, 브렉시트가 보여주듯 가소성을 보여준다.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위기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덧붙여 위기 국면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보는 관점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 사이에 사고와 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그 결과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시각이다. 끝으로 전술적 의존성의 확대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특정 행위자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일례로 유럽통합을 주장하는 모네의 담론이 국경을 넘어

33) Dobry,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다른 나라 시민사회까지 전달되고, 이들이 하나의 전술적 협력을 이루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브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정치 사회학의 틀 속에서 만들어졌다. 당연히 도브리가 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형은 프랑스 정치 시스템이다. 중앙화의 전통이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 위기를 유럽의 차원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위기 분석도 존재한다. 금융 위기는 세계화 이후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를 동시에 강타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sup>34)</sup>.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 파동이 자연재해의 위기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sup>35)</sup>. 금융이나 에너지,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는 국가 권력이나 국제 협력의 강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립시는 코비드19 사례를 통해 위기가 가져오는 정치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립시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소 상황과 비교해 위기 시에는 강한 위협이 가해지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간의 압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위기의 정치는 평소의 정치와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다음 표는 이런 차이점을 잘 요약한다.

- 
- 34) Eric Helleiner, "Understanding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4, 2011, pp.67-87; Peter J. Katzenstein and Stephen C. Nelson, "Reading the Right Signals and Reading the Signals Right: IPE and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5), 2013, pp.1101-1131.
- 35) G. John Ikenberry, "The Irony of State Strength: Comparative Responses to the Oil Shocks in the 1970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1), 1986, pp.105-137; Dawn Brancati, "Political Aftershocks: The Impact of Earthquakes o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5), 2007, pp.715-743.

표1) 개방경제의 정치와 위기의 정치 전형<sup>36)</sup>

| 개방경제의 정치      | 위기의 정치           |
|---------------|------------------|
| 강한 분배적 선호     | 약한 분배적 선호        |
| 지속적인 일상적 상호관계 | 돌발적이고 비정기적인 상호관계 |
| 기존의 제도        | 즉흥적 처리           |
| 리더의 제한된 역할    | 리더의 중심적 역할       |
| 내재적 국제 결과     | 외재적 국제 결과        |

위협의 정도, 불확실성, 시간의 압력이 강할수록 보다 전형적인 위기의 정치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 표가 보여주는 결론은 도브리의 분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약한 분배적 선호는 다른 행위자들과 돌발적이고 비정기적인 상호관계를 맺게 해주는 유동성을 의미한다. 진술적 의존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사안의 즉흥적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내재적 논리보다 외재적 논리가 커진다는 면에서도 합치한다. 리더의 역할이 위기에서 커진다는 사실도 실제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는 결론이다.

위기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경우 유럽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심화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 아예 유럽이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통합을 진행한다는 이론도 존재한다. ‘최후 수단의 정치’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화이트는 유럽연합이 항상 위기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한다<sup>37)</sup>. 외부적 위기에 유럽이 대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통합을 진전시키는 전략의 차원으로 돌변하는 셈이다. 화이트가 비판하는 핵심은 유럽의 거버넌스가 위기의 모드로 돌변하면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치전략론은 본격적으로 위기와 통합의 연결 고리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위기가 통합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위기를

36) Philip Y. Lipscy, “COVID-19 and the Politics of Cri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 Supplement, 2020, p.E104.

37) Jonathan White, *The Politics of Last Resort: Governing by Emergency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인위적으로까지 만든다는 분석은 구체적인 연구에서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각이다.

## V 연구전략

이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이론의 틀을 만드는 작업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럽통합이라는 복합적 역사적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론의 관점에서 위기와 통합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사례 연구에 어떤 이론적 도구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발견하려는 목적이다.

기능주의와 제도주의는 유럽통합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는지 설명하는데 요긴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 기능주의는 통합이 시작되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왜 정체가 발전이 번갈아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변증법적 기능주의의 설명으로 위기는 정체의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발전으로 넘어가는 모멘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능주의적 설명은 사후적으로 통합의 사례에 적용되나 왜 특정 영역에서는 통합이 이뤄지고 다른 영역에서는 지지부진한지의 차이를 구별해 내고 설명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제도주의도 유럽통합의 계속되는 강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다. 어떤 점에서 기능주의보다 더 강하게 통합의 진전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능적 필요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제도주의의 관점에서는 통합이 제도의 힘을 활용하여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며 축적되기 때문이다. 제도주의는 전환점이라는 결정적 순간의 개념을 활용하나 전환점이 반드시 위기에서 비롯되거나 위기를 통해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제도주의는 위기와 통합의 연결이 가장 느슨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가 통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제도의 지속성과 힘에 더 크게 의지

하기 때문이다.

정치전략론은 기능주의와 제도주의가 제공하는 구조적 기반의 무대 위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가는가를 설명한다. 위기와 통합을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기는 정치전략론에서 비로써 독립적인 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는다. 기능주의에서 위기는 정체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문제 정도로 여겨진다. 제도주의에서 위기는 전환점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반드시 전환점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전략론은 위기를 통합이 진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기존의 기능적 압력이나 제도적 제약은 위기의 시기에 행위자의 전략에 따라 강화/약화하고, 행위자의 기술적 합중연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전략론은 위기의 지위를 단순한 외부적 요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행위자들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회로까지 본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위기의 담론 구조는 유럽 통합뿐 아니라 모든 정치 영역에서 집단 행동을 뒷받침하는 정당화의 기술로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차원으로 유럽통합을 이해한다면 위기가 과거 국가건설과정에서 확인했던 역할과 유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sup>38)</sup>. 정치전략론에서 위기는 객관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발전시킨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

38)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990-1990* (Wiley-Blackwell, 1992).

## 참고문헌

조홍식, 「지역통합과 전략적 구성주의: 이론 및 비판적 고찰」, 『유럽연구』, 30-3 (2012), 1-30쪽.

Alter, Karen, *Establishing the Supremacy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Badie, Bertrand, *Le développement politique* (Economica, 1994).

Béjin, André, “Crise,” Raymond Boudon et al. *Dictionnaire de la sociologie* (Larousse, 1989), pp.51-52.

Bergmann, J. and P. Müller, “Failing forward in the EU’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The integration of EU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8(10), 2021, pp.1669-1687.

Bickerton, Christopher J., *European Integration: From Nation-States to Member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Brancati, Dawn, “Political Aftershocks: The Impact of Earthquakes o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5), 2007, pp.715-743.

Braudel, Fernand, *Grammaire des civilisations* (Flammarion, 1993).

Brooks, Eleanor, Anniek de Ruijter, Scott L. Greer and Sarah Rozenblum, “EU health polic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neofunctionalism and crisis-driven integr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0(4), 2023, pp.721-739.

Capoccia, Giovanni and R. Daniel Keleman, “The Study of Critical Junctures. Theory, Narrative, and Counterfactuals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orld Politics* 59, April 2007, pp.341-369.

Clarke, Simon, *Marx’s Theory of Crisis* (Springer, 1994).

Cohen, Déborah et Jacques Guilhaumou, “Crises et révoltes sociales dans l’historiographie de la France contemporaine,” *Actuel Marx*, No 47, 2010, pp.43-53.

- Corbey, Dorette, “Dialectical functionalism: stagnation as a booster of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2), 1995, pp.253-284.
- Deutsch, Karl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Dobry, Michel,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La dynamique des mobilisations multisectorielles* (Presses de Sciences Po, 2009).
- Durkheim, Emile,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3).
- Elster, Jon, *Alexis de Tocqueville, the First Social Scient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Genschel, P. and M. Jachtenfuchs, “From market integration to core state powers: The eurozone crisis, the refugee crisis and integration theor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6(1), 2018, pp.178-196.
- Grin, Gilles, *Jean Monnet et les crises européennes* (Fondation Jean Monnet, 2009).
- Haas, Ernest,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30(2), 1976, pp.173-212.
- Haas, Ernest, ed.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3r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4 [1958]).
- Hall, Peter A. and R.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1996, pp.936-957.
- Helleiner, Eric, “Understanding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4, 2011, pp.67-87.
- Ikenberry, G. John, “The Irony of State Strength: Comparative Responses to the Oil Shocks in the 1970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1), 1986, pp.105-137.
- Katzenstein, Peter J. and Stephen C. Nelson, “Reading the Right Signals and Reading the Signals Right: IPE and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5), 2013, pp.1101-1131.

- Jones, E., R. D. Kelemen and Sophie Meunier, “Failing forward? The euro crisis and the incomplet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9(67), 2016, pp.1010-1034.
- Lefkofridi, Z. and Philip C. Schmitter, “Transcending or descending? European integration in times of crisi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2015, pp.3-22.
- Lindberg, Leon N. and Stuart A. Scheingold, *Europe's would-be polity : patterns of change in the European community* (Prentice Hall, 1970).
- Lipsky, Philip Y., “COVID-19 and the Politics of Cri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 Supplement, 2020, pp.E98-E127.
- Milward, Alan S.,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 State* (Routledge, 1992).
- Mitrany, David,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Government* (Allen&Unwin, 1933).
- Monnet, Jean, *Mémoires* (Fayard, 1976).
- Nicoli, F., “Neofunctionalism revisited: Integration theory and varieties of outcomes in the eurocrisi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42(7), 2020, pp.897-916.
- Niemann, A. and J. Speyer, “A neo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European refugee crisis’: The case of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6(1), 2018, pp.23-43.
- North, Douglass,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Pierson, Paul, “The Path to European Integration: A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2), 1996, pp.123-163.
- Rosamond, Ben,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Red Globe Press, 2000).
- Schmitter, Philip C., “Three neo-functional hypotheses about intern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23(1), 1969, pp.161-166.
-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sup>rd</sup> ed. (Harper Perennial, 2008).
- Stone Sweet, Alec, *The Judicial Construction of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wedberg, Richard, *Max Weber and the Idea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Tilly, Charles,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990-1990* (Wiley-Blackwell, 1992).

Weiler, Joseph H., "The Transformation of Europe," *Yale Law Journal* 100, 1991,

Wiener, Antje, Tanja A. Borzel, and Thomas Risse, eds., *European Integration Theory*,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White, Jonathan, *The Politics of Last Resort: Governing by Emergency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Abstract〉

## Crisis and Integration in Europe : Theoretical Perspectives

Hong Sik CHO\*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nd analyze the theoretical connections between crisis and integration in Europe-making historical movement. Rather than comparing recent integration theories among diverse schools of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I emphasize several concrete theoretical methods linking directly crisis and integr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functionalist and neo-functionalist theories will be considered with their concepts of spillover, spillover, or buildup. Then, I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which has brought about interesting and fruitful insights into crisis-integration analysis. Finally, I present political-strategy-perspective underlining actors and agency which can complement structural approaches of functionalism and institutionalism. I will conclude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combining those diverse perspectives in empirical research.

**Key words:** Europe, Crisis, Integration, Theory

원고접수일: 2023. 10. 1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확정일: 2023. 11. 11.

---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chs@ssu.ac.kr

